

17世紀 네덜란드 繪畵에 나타난 市民服飾에 關한 研究

劉珠利* · 曹五順

昌原大學校大學院 衣類學科碩士*, 昌原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the Civil Costumes Appeared on Dutch Paintings in the 17th Century

Joo-Lee Yoo* and Oh-Soon Cho

MA.,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Chang Won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Chang 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e 17th century, Europe had changed from medieval feudalistic ages into an absolute monarchy taking Catholicism and absolute monarchism together. On the other hand, Holland achieved prosperity in economy, culture, and arts through gradual enlightenment of the people by winning independence from Spain, and religious reformation.

The culture dress and its ornaments at the time was led by the governing class such as royal families and its aristocracy in Europe, while Holland, united republic country at the time, brought civil costume nationwide wholly by civil class and its effect to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 Europe. In addition, the origin of modern dress and its ornaments dates back to that time.

Moreover, civil-looking dutch paintings found its sources in routine daily life and became realistic. With this respect, in this research, we put our purpose of the research in making a better and more understanding of the modern costume and its ornaments and exploring the spirit of human beings by analyzing dutch civil costumes shown in these artistic work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is research is rather renovational comparing with prior ones focused on those of ruling class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distinguished parts of the civil costumes appears as following beauties.

First, functional beauty was respected such as natural waist line, peplum, gather of the skirt and sleeve, apron, head towel were some of the examples to those in their costumes and its ornaments.

Second, with respect to humanity under rough natural surroundings and long struggle with outside tribes, humanity of costume was brought by optimistic and even free mind to them. The three quarter sleeve showed wrist and deep-cut décolleté in their dress and ornaments.

Third, with respect to simplicity, religious effect on the leading civil class demanding self-abstinence, frugality, and thrift in their way of life resulted in black-tone simple costumes with white collar in their costumes and its ornaments.

I. 서론

1. 연구목적 및 의의

현대복식은 젊은 대중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그 이전의 복식문화는 왕, 귀족계급과 같은 지배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복식사학자 스틸(Valerie Steel)이 주장한 '복식의 유행이란 바로 당시의 힘을 가진 계층에 의해

흐른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17세기 네덜란드(Netherland)에서는 스페인으로 부터의 독립과 함께 시민계급²⁾이 성장, 세력권을 쥐게 되면서 시민이 주체가 된 개성있는 복식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시대의 네덜란드 회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주변국들의 대가(大家)-플랑드르의 화가 반 다이크(Van Dyck)와 루벤스(Rubens), 스페인의 벨라스케스(Velasquez), 엘

그레코(티 Greco)등-들이 귀족들의 초상화나 종교적 색채가 짙은 주제를 주로 다룬 것과는 달리 네덜란드 화가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서민의 생활과 같은 일상적인 삶을 표현하였다³⁾. 그들이 남긴 그러한 풍속화, 초상화 등을 통해 당시 유럽일대에 영향을 미친 네덜란드 시민복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복식사 연구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내 서양복식사의 영역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진행되어 왔기에 17세기 네덜란드 복식의 독자성과 주변국에 영향을 주었던 시민복식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네덜란드의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독립이전의 플랑드르, 구 네덜란드 지역의 성모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⁴⁾와 18, 19세기에 최고조에 달했던 민속의상에 대한 연구⁵⁾, 17세기 네덜란드 복식의 전반적인 연구⁶⁾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17세기 네덜란드 시민계급의 복식문화는 명백히 주변국의 복식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⁷⁾ 현대복식을 예견하는 근거로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네덜란드 시민복식의 연구는 현대복식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동안 연구되어왔던 지배계급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가 전환됨으로서 보다 폭 넓은 복식사 연구영역과 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화에 나타난 시민복식을 복식의 장학 요소⁸⁾에 근거하여 아이템별로 분석하고, 시민복식에 내재된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의 조형미를 함께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시민계급의 복식으로, 본 연구에서 시민계급이라 함은 왕족과 귀족계급을 제외한 중산층 이하의 모든 계층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시민계급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찰하고 그러한 배경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주도했던 네덜란드 회화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회화에 나타난 복식은 복식의장학 요소에 근거하여 남녀복식을 아이тем별로 분석하였고, 복식에 내재된 그 시대인들의 조형미를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내용을 근거로 복식사 연구의 방향과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자료와 시각 자료의 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 자료로는 네덜란드의 역사와 문화사, 미술사 그

리고 복식에 관련된 서적과 논문 등을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시각 자료로는 17세기에 활동했던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중 시민계급이 중심이된 풍속화와 초상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II. 사회·문화적배경

1. 시민계급의 성장

네덜란드는 당시 유럽의 어느나라 보다도 시민계급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것은 네덜란드가 금욕적이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태도의 칼빈교를 신봉하므로서 근대 자본주의의 독특한 정신적 태도를 형성하였으며 동시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이용해 상업국으로 발전하여 시민계급의 경제력이 향상된데 그 원인이 있다.

당시 유럽의 종교는 왕정과 결탁하여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으므로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에 의한 종교개혁은 불가피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은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종교개혁은 스위스에서 전개되어 16-17세기의 전환기에는 네덜란드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다.¹⁰⁾ 칼빈의 교리는 '모든 신자는 직접 신과 교섭하는 아들들'이라는 종교관을 내세움으로써 본질적으로 반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띠며¹¹⁾ 신자들에게 근면하게 직업노동에 종사하며 이를 위하여 모든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생활을 합리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칼빈주의의 생활태도는 재화의 축적과 함께 생산력 증대를 초래하여 근대 자본주의의 독특한 정신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였다.¹²⁾ 따라서 신교를 신봉하는 국가들은 자유를 존중하는 정신의 증대와 함께 자본가의 합리적인 이윤추구를 승인하고 고무하므로서 근대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으며¹³⁾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관계가 있다는 막스 베버의 명제가 뒷받침¹⁴⁾해 주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의 지배층인 왕족과 귀족이 경제권을 획득하였지만, 이제는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지 시민계급이 경제의 주체였다. 이와같이 종교개혁의 영향과 경제력을 통해 새로운 계층으로 힘을 갖게 된 시민계급은 스페인 필립 2세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스페인으로부터의 국가적 독립을 획득한 주체였으며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자유로운 시민국가의 건설과 함께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대해운업국'이 되었고, 중산층 시민계급의 상인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풍요와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2. 회화의 사실주의적 특성

해상무역과 식민지 개척으로 축적한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7세기 유럽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하나가 된 네덜란드의 종교적, 정치적 성향은 새롭고 독특한 문화를 형성시켰다. 특히, 미술분야에 있어서 화가는 작품의 대상을 과거의 관습과 전통적인 것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취했다. 그들이 재현해낸 인물들은 더 이상 성자도 귀족도 아닌 시장과 민병, 농민들이었다.

따라서 네덜란드 미술은 바로크의 전성기를 보여주었던 다른 나라들의 미술양식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네덜란드 미술이 바로크 양식에 휩쓸리지 않았던 이유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체제와 부의 축적에 의해 변화한 사회상에 있었다. 신교적인 분위기에서 종교화(宗教畫)는 그 필요성을 상실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교가 신자들이 신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설교하며 신자들을 대표하는 성직자가 신 앞에 나서는 기독교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 성직자의 활동을 그려내는 종교화는 자연히 필요없는 것이 되었다. 칼빈은 '종교화의 숭배는 우상숭배와 다르 않다'¹⁵⁾는 견해를 가지고, 예술가들이 종교와 관련이 없는 주제, 예를 들면 일상생활을 하는 주위의 인물들을 그리는 것을 원하였던 것이다.

또한 유럽의 다른 지역보다 두터운 중산 시민계급층이 있었던 네덜란드는 이들의 경제적 여유로 인해 미술품의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 미술품 구입에 흥미를 갖고 있는 시민이 원하는 그림은 자신의 실내에 걸어 놓고 즐길 수 있는 조그마한 정물화, 초상화, 풍경화, 풍속화 등이었다¹⁶⁾.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이 화가들의 제작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종전까지 종교화의 배경에 불과했던 풍경화, 정물화, 풍속화 등이 독립적인 미술 장르로 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르의 전문화(專門化) 경향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처음 나타났다. 전문화란 회화의 특수한 분야, 특수한 장르의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속과 풍경 및 정물같은 모티브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가치를 얻게 되었으며¹⁷⁾ 화가는 더 이상 대상을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되었다. 전문화가들은 각 분야에 대한 묘사력이 대단히 뛰어났으며 대상의 완벽한 재현이 네덜란드 화가들의 목표이자 훌륭한 그림의 평가기준이 되었다¹⁸⁾. 이러한 사실주의 경향으로 인해 그들이 남긴 그림들은 그 당시 시대상황을 대변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복식사 연구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성실하고 자유스런 시민계급이 사회의 기반이 된 시대에

서나 표현되어질 수 있는 풍속화 및 초상화가 이와같은 배경의 네덜란드에서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러한 회화가 실제의 일상생활에 근거한 사실주의적 특성을 지녔다는 것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Ⅲ. 회화에 나타난 시민복식

1. 여성복식

1) 로브(Robe)

(1) 상의

당시 유럽의 바디스가 르네상스의 양식을 전승 받으면서 고래수염으로 단단하게 받치거나 금속제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여 강조한 비활동적인 실루엣인 반면, 네덜란드 시민복의 바디스는 고래뼈나 금속제 코르셋을 사용하지 않아 부드럽고 여유있으며 활동적인 실루엣이 대부분이었다. 바디스의 대부분은 앞트임의 형태로, 끈을 끼워 지그재그 모양으로 조이거나 그 위에 리본루프 다발로 장식하여 마무리 하였다.

바디스 또는 스토마커의 스커트 자락인 페플럼은 여러조각으로 나뉜 짧은 것(그림 1), 또는 길고 풍성한 것이 달렸다(그림 2). 긴 페플럼은 허리선에 주름이 잡혀있어 스커트와 함께 자연스런 실루엣을 이루면서 활동적이고 편안한 모습이었으며 동시에 스커트와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였다.

네크라인은 대개가 목둘레선을 많이 판 데콜레테(décolleté) 이고(그림 2), 가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하였던 러프 칼라의 잔재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폴링 밴드와 같은 플랫폼 칼라와 함께 머리뒤로 뺀 흰



<그림 1> Vermeer, 술병을 잡고 있는 여인(1662), 출처: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

스크(whisk) 칼라도 유행하였으나, 네덜란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어깨를 덮는 케이프형의 넓은 플랫폼 칼라가 많이 보였다(그림 1, 3). 케이프형 칼라는 실용적인 흰 린넨천을 대각선으로 접어 목과 어깨에 걸치고 앞목에서 고정시켰다. 또한 가슴선과 목선을 가리기 위해 스카프나 수건을 간단하게 두른 모습에서 시민들의 소박함을 느낄 수 있다.

외투를 포함한 로브의 거의 모든 소매가 손목을 드러내는 칠부길이다. 칠부 소매는 소매를 걸어서 접어 입은 것(그림 3, 4)과 원래 칠부길(그림 1, 5)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일하기 편하도록 소매를 걸어 입음으로서 탄백 커프스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소매선에 주름을 잡거나, 소매산과 소매단 모두에 주름을 잡은 칠부 비숍(bishop) 소매는 커프스가 달려 있으며(그림 5) 외투인 경우에는 모피로 장식되었다(그림 5, 6). 이러한 비숍소매는 어깨선이 내려와 낮은 소매를 이루고 규칙적으로 잡힌 주름은 넉넉한 소매통을 형성하여 당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보여지는 퍼프(puff)소매와는 다르게 매우 활동적이고 편안한 형태였다.

(2) 하의

스커트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허리에서 치마단까지 적당히 부풀려서 굴곡없이 내려간 형태로 후프나 파딩게일(farthingale)을 착용하지 않았다(그림 1, 2). 그러나 페티코트를 입어 약간 부풀리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뒷자락이 앞자락보다 길어 트레인이 있었다. 시민계급 중에서도 노동을 주로 하는 층에서 많이 입은 것으로 보이는 자연스런 원통형 실루엣의 스커트는 그 길이가 발등까지로 기능적이었(그림 3, 4, 5). 모든 스커트의 허리선에 주름을 잡아 활동성을 높였으며 앞중심선과 스커트단에 브레이드와 같은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그림 3, 4, 5). 오버 스커트는 앞자락을

트지 않고 빙둘러 켜매어 붙인 짧은 스커트로 된 형태였다(그림 3, 4). 이 점은 다른 유럽국가가 오버 스커트의 앞자락을 터서 뒤로 당겨 장식적이고 화려한 언더 스커트 또는 페티코트가 드러나도록 입은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에이프론인데 상류층에서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하층민들은 실용적인 목적에 의한 필수품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여지는 에이프론은 주로 가정주부와 농촌 여성들이 스커트를 보호하기 위해 질긴 천으로 만든 실용적인 것이었다(그림 2, 4, 5).

2) 슈미즈(chemise)

슈미즈는 고대로부터 계속 언더 튜닉으로 입어온 의복으로¹⁹⁾ 피부 위에 바로 입은 속옷이다. 주로 흰색의 린넨으로 만들었으며 네크라인과 소매에 레이스나 프릴을 장식하였는데 본 연구 자료에서는 프릴 정도만이 나타났다(그림 2).

이러한 슈미즈의 네크라인이 바디스의 네크라인 밖으로 보이면서 칼라의 역할을 하고 가슴선을 가려주기도 하였다. 슈미즈가 걸옷 위로 많이 드러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유럽에서 사용한 것이 상당히 화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무척 소박하였다.

3) 외투(wrap)

온난하지만은 않은 기후 조건으로 인해 외투를 착용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모피로 안을 대고 네크라인과 앞중심, 외투의 밑단과 소매단에도 장식을 한 것이 유행하였다(그림 5, 6).

대개가 엉덩이 길이로 헐렁하고 단순한 형태이며 허리에서 한번 핏트시켜 주었다. 임부복으로 보이는 A-라인의 외투에는 모피대신 루프가 앞중심과 소매에 장식되어 있다.



<그림 2> Steen, 테라스에서의 연회, 출처: The Dutch Pictures



<그림 3> Hooch, 홀란드 집의 둘, 출처: The Art of Describing



<그림 4> Hooch, 하녀와 여주인, 출처: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



<그림 5> Metsu, 편지를 읽는 여인,
출처: The Art of Describing



<그림 6> Mieris로 추측, 애완견의 귀를 당기는 남자,
출처: The Dutch Pictures

4) 머리모양과 머리장식

머리모양은 대부분 앞 이마를 드러내고 뒤로 바짝 빗어 넘겨 납작한 롤빵 모양으로 틀어 올려 정리하였고 그 위에 작은 캡이나 머릿수건을 착용하였다. 귀에서부터 올린머리 위에 고정시킨 왕관 형태의 다이어엠 캡(diadem cap)은 레이스나 린넨에 풀을 뽀뽀하게 먹이거나 돌레에 철사를 대어 만든 네덜란드 특유의 머리장식으로서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해 주었다(그림 3, 4, 5)²⁰⁾.

머릿수건 또한 네덜란드의 특징적인 아이템으로서 정방형으로 접어 모양을 잡은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머리를 감싼 후 턱밑에서 묶은 것까지 다양하였다(그림 1, 4, 5, 6). 엄격한 종교규율의 영향으로 머리카락을 드러내지 않고 완전히 감싼 경우도 있었다.

5) 신발 및 장신구

신발은 스커트에 가려 자세히 볼 수는 없었으나 시민계급의 스커트 길이가 조금 짧은 편이어서 약간의 관찰은 가능하였다. 앞의 발가락 부분은 가름하면서 그 끝은 약간 뭉툭한 슬리퍼 형태를 주로 신었으며, 단화는 장식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굽은 아주 낮거나 보통이었다(그림 4, 5).

장신구의 사용은 극히 적었고, 바디스나 스토타커의 네크 라인 앞중심에 브로치를 달기도 하였다(그림 2).

2. 남성 복식

1) 상의

전체적으로 헐렁하고 여유있는 실루엣의 푸르푸엥은 세가

지 스타일로 나타났다.

첫째는 16세기의 영향이 남아있는 스타일로, 허리 아래까지 오는 짧은 길이에 여러장의 페플럼이 달린 기능적인 것이었다(그림 7). 소매에는 턱백 커프스가 있으며 칼라는 레이스나 무지의 폴링 칼라로 실용적이었다. 레이스의 폴링 칼라에는 레이스로 된 커프스가 달리므로서 조화를 이뤘다.

두 번째 스타일로는 엉덩이 윗부분까지 오는 그리 길지 않은 길이의 여유있는 실루엣으로 페플럼이 달리지 않았다(그림 7). 대신 허리선에 루프가 달리기도 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는 푸르푸엥의 길이가 허리선까지 더욱 짧았으며 뒷중심에 트임이 있어 활동적이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보이는 스타일로 엉덩이를 덮는 정도의 긴 길이로 촘촘한 단추 장식이 특징적이다(그림 7, 8). 단추는 네크에서 허리선까지 달려있으며 소매에 세로로 촘촘하게 달리거나 손목의 트임에 달리기도 하였다. 대부분 어깨를 덮는 흰색의 폴링 칼라가 달리고(그림 9), 앞 목중심에는 분리된 칼라를 고정시키는 끈에 술(tasse)을 달아 장식성을 가미시켰다. 반면, 집단 초상화에서는 르네상스의 뽀뽀한 러프 칼라에서 17세기의 대표적인 폴링 칼라까지의 변천을 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칼라가 나타났다. 뽀뽀하게 주름잡힌 러프 칼라와 풀기를 뺀 폴링 러프 칼라, 레이스나 흰 린넨으로 된 폴링 칼라 등이 그것이다.

17세기 남성의 새로운 네크웨어이며 오늘날 넥타이의 기원이 된 크라바트(cravat)를 목에 두르기도 하였다(그림 10). 사각형의 천을 대각선, 혹은 반으로 접고 처음 접은 것과 평행하게 반복해서 접어 좁은 타이 모양으로 만든 후 목에 두르고 의상과 어울리는 다른 색상의 끈으로 나비매듭을 묶어



<그림 7> Avercamp, 겨울풍경,
출처: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



<그림 8> Steen, 여관에서의 축제,
출처: The Art of Describing



<그림 9> Steen, 성 니콜라스 축제의,
출처: The Art of Describing



<그림 10> Steen, 식전 감사기도,
출처: <http://sunsite.unc.edu/cjackson/fineart.htm>



<그림 11> Steen, 바이올린 연주자,
출처: The Dutch Pictures

앞에서 고정하였다. 유럽의 다른나라에서 레이스 크라바트를 리본으로 매어 넥 주위를 풍성하게 한 것에 비해 오늘날의 손수건 스카프와 같은 이러한 모양은 매우 소박하다.

2) 하의

하의인 바지는 혈형한 실루엣의 철부길이인 판탈론(pantaloons)과 스커트 형태의 바지인 랭그라브(ringrave), 자루 형태의 킬로트(culotte)와 같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

판탈론은 위에서 아래까지 일정한 통으로 혈형하게 내려뜨린 바지로 길이는 종아리까지 오거나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기도 하였다(그림 7). 그러나 대부분 종아리까지 오는 철부길로 바지단에 다른색상의 브레이드 장식을 하거나 루프 장식을 하였다.

스커트 형태의 바지 랭그라브는 페티코트 브리치즈라고도 불렀다. 양다리로 갈라져 있으나 폭이 넓어 마치 스커트같이

보이기도 한다(그림 9). 무릎정도의 길이로 허리에 주름이 잡혀 있고 바지 옆선에 여러줄의 브레이드 장식이 되어있거나 옆선 아랫단에 루프다발이 달리기도 하였다.

하층 시민계급이 가장 많이 입은 것으로 보이는 킬로트는 허리선에 주름을 잡아 윗부분은 활동하기에 적당한 폭이고, 무릎 밑에서는 꼭 맞게 되어 있는 간편한 형태이며 아무런 장식도 없고 앞이 그대로 트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7, 8, 11). 앞트임을 덮기 위해서는 복잡한 재단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므로 그냥 간편하게 터진채로 입은 듯 하다.

중류층 시민계급의 킬로트는 꼭 맞는 무릎 밑으로 무릎 장식인 캐논(canon)을 달고 옆선에는 단추나 브레이드 장식을 하였다. 옆선에 약간의 트임이 있어 단추나 루프를 달기도 하였다. 원래 캐논은 양말 윗부분과 무릎부분을 가리는 것으로 마 또는 폭 넓은 레이스로 만들어 무릎 부근에서 동

여매어 마치 전등갓과 같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매우 축소되고 간소화된 형태로 나타나 있다.

3) 양말(socks)

호즈(hose), 바 드 쇼스(bas de chausses), 스타킹(stocking)으로 불리는 양말을 모든 바지 아래에 착용하였다. 대체로 편직물로서 다리에 꼭 맞았으나, 간혹 주글주글거리게 신는 것도 눈에 띈다. 그것은 아마도 부츠안에 신는 부츠 호즈(boots hose)를 단화와 함께 신는 것으로 추측된다.

4) 외투(wrap)

상의 위에 걸친 겉옷으로서의 외투는 망토(manteau)와 캐석(cassock),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망토는 맨틀이나 케이프로도 불리지는 일상적인 겉옷이다. 원형이나 반원형으로 재단된 망토는 양 어깨위에 자연스럽게 걸치거나 망토의 오른쪽 자락을 앞을 가로질러 왼쪽 어깨에 걸쳐 입었다(그림 6).

캐석은 길고 실용적인 의상으로 대개가 무릎까지 오는 길이이며 허리선이 낮았다(그림 10). 허리선 밑으로는 A-라인의 플레이진 스커트가 달려 있었다. 소매는 어깨에서 조금 더 내려올 정도로 짧았고 납작한 윙이 달리기도 하였다. 그 형태는 오늘날의 캡(cap)소매와 비슷하다. 앞중심과 스커트 단

부분에 브레이드와 단추 장식을 하기도 하였으며, 행잉 슬리브(hanging)가 달린 것도 있었다.

5) 머리모양과 모자

플 먹인 러프칼라가 사라지고 어깨위로 내려앉은 폴링 칼라가 유행하면서 남성의 머리모양도 변화하였다. 자연스럽게 컬진 머리를 어깨위로 늘어뜨리게 되었다(그림 6). 그러나 학자나 기사들에 비해 평시민은 머리가 다소 짧은 경향을 보인다(그림 8). 모두가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른 국가에서 유행한 가발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모자는 간혹 크라운이 높고 챙이 좁은것과 베레 스타일도 보이긴 하나(그림 7, 8) 대부분은 크라운이 낮고 챙이 넓으며 꼭대기가 평평한 캐발리에(cavalier) 스타일이었다(그림 6, 9). 타조깃털을 꽂아 장식하기도 하였다. 모자는 신분이나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거의 검은색의 펠트나 비버 모피로 만들어졌다²¹⁾.

6) 신발 및 장신구

바로크 양식이 지배적인 주변국의 유행 스타일이었던 부츠도 간혹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은 단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다.

하층 시민의 단화는 굽이 낮고 앞이 네모졌으며 작은 리본으로 앞부분을 고정하였다(그림 2, 8, 9). 중류층의 단화는 굽이

<표 1> 회화에 나타난 여성복식의 특징

복식	항목	특 징	장 식	비 고
로브	상의	바디스는 ① 긴 페플럼이 달린 여유있는 실루엣 ② 짧은 페플럼이 달린 약간 타이트한 실루엣 ③ 스토마커를 댄 타이트한 실루엣	브레이드, 루프	
		네크라인과 칼라는 ① 러프 ② 폴링 러프 ③ 데콜테 ④ 케이프 ⑤ 스카프나 목수건		
	소매는 ① 철부길이의 비숍 ② 철부길이의 일직선 형태	모피장식, 슬래시		
	하의	스커트는 ① 페티코트로 적당히 부풀리고 뒤에 트레인 ② 원통형의 자연스런 실루엣, 발목길이	브레이드	허리에 주름
여러색상의 에이프런은 앞뒤로 둘러입음				
슈 미즈	데콜테된 네크라인과 철부소매 아래로 드러남	프릴		
외 투	① 엉덩이 길이로 허리에서 약간 핏트됨 ② A-라인(임부복으로 추측됨)	모피 장식		
머리모양	① 앞이마를 드러낸 올린머리 ② 얼굴주위에 작은 컬이 있는 올린머리 ③ 얼굴 양옆에 링글렛			
머리장식	① 다이아몬드 캡 ② 정방형으로 접은 머릿수건 ③ 머리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턱에서 묶음 ④ 완전히 머리를 감싼 형태	종교의 영향으로 머리카락을 감춤		
신 발	① 앞이 가름한 슬리퍼 형태 ② 앞이 뭉툭한 단화 형태			
장 신 구	귀고리, 목걸이, 브로치	진주		

<표 2> 회화에 나타난 남성복식의 특징

항목		특 징	장 식	비 고
상의	푸르푸엥	① 허리길이를 페플럼 달림 ② 허리선 아래길이를 여유있는 실루엣 ③ 엉덩이 길이로 여유있는 실루엣	왕, 단추장식, 루프다발	
	칼 라	① 러프 ② 폴링러프 ③ 폴링밴드 ④ 크라바트	고정시키는 끈에 태슬	모두 흰색, 커프스와 조화
하 의		① 장단지 길이의 통바지 판탈론 ② 스커트 형태의 랭그라브 ③ 무릎에서 꼭 맞는 자루형태의 켈로트	루프, 단추, 캐논	
슈 미 즈		상의의 단추를 허리선까지만 채워 슈미즈를 보이게 함		
양 말		① 다리윤곽이 드러나는 편직물 ② 부츠호즈	슬래시	
외 투		① 원형, 반원형 재단의 망토 ② 무릎길이의 실용적인 캐식	브레이드 단추	
머리모양		컬진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림		
모 자		① 춤이 높고 챙이 좁은 형태 ② 베레 스타일 ③ 챙이 넓고 춤이 낮은 캐발리에 스타일		종교, 신분과 관계없이 거의 검은색의 펠트나 비버모자
신 발		① 입구가 넓고 벌어진 승마용 부츠 ② 앞이 뭉툭하고 굽이 낮은 단화 ③ 앞이 가름하고 굽이 약간 있는 단화	로젯트	
장 신 구		① 발드릭 ② 장갑	자수	

있으며 앞이 길게 네모졌고 발등에 로젯트(rosette)장식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그림 7). 신고 벗기 편하고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양 옆이 트인 디자인이 보편적이었다. 남성의 장신구로는 기사와 학자로 보이는 중류층 시민계급의 발드릭(baldric)과 장갑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1, 2>로 요약된다.

IV. 시민복식에 표현된 조형미

복식사를 연구함에 있어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식의 조형미를 외형적 분석과 함께 병행하여 살펴보는 것은 종합적인 복식사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단지 ‘옷’의 개념이 아닌 인간과 옷의 결합체인 ‘복식’이라는 총체적 의미로서의 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시민복식의 외형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시민복식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기능미

기능미의 추구는 복식에 있어 혈렁하고 여유있는 실루엣, 스커트의 주름, 페플럼과 철부의 비숍 소매, 플랫폼 칼라와 에

이프론, 머릿수건 등으로 표현되었다.

속심을 넣은 패딩이 사라지면서 여유있는 실루엣이 되었으며, 제자리를 찾은 허리선에는 길거나 짧은 페플럼이 달리게 되었다. 페플럼은 여러조각으로 나뉘어 상의와 하의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동성을 높여 주었다.

남성의 바지 켈로트는 허리에 주름을 잡아 폭이 풍성하였으며 무릎아래에서는 꼭 맞게 고정시켜 활동하기 편안하였다. 방한을 목적으로 한 외투 캐식은 무릎정도의 길이에 여유있는 실루엣으로 매우 실용적인 의상이었다.

여성들도 금속으로 된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아 활동하기에 편안하였다. 파딩게일과 같은 버팀대가 사라진 스커트는 허리에 주름이 들어가 적당한 원통형 실루엣을 이루었다. 팔목을 드러낸 짧은 소매도 아주 혈렁했으며 진동선과 소매부리에 규칙적인 주름이 잡혀 있어 매우 기능적이었다. 진동선의 위치 또한 어깨 아래로 내려와 팔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하였다.

칼라는 풀을 먹이지 않아 어깨에 자연스럽게 내려왔으므로, 목의 움직임이 한결 편안하였다. 네덜란드 특유의 케이프형 칼라는 편안함 뿐만 아니라 방한의 실용적인 목적과 함께 장식적인 역할도 하였다. 네덜란드의 특징적 아이템인 머릿수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방한의 목적과 동시에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었으며, 에이프론은 의복의

더러움을 방지하고 쉽게 세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민복식에 표현된 기능미는 정신적으로는 종교의 영향을,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의 실용주의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국교로 승인된 칼빈교는 금욕주의적 직업윤리와 근면함을 요구하면서 생활속의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였으므로²²⁾ 복식에 있어서는 자연 기능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종교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복식에 기능미를 부여한 요인은 경제적 측면의 실용주의이다. 대해운업을 통한 상업국이었던 네덜란드의 시민들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크게 부풀리고 과장시키거나 꼭 조인 의복이 불편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움직이거나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실용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기능적인 복장을 만들어 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 인간미

인간미는 깊은 데콜테와 짧은 소매, 정숙하지만은 않은 옷매무새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깊게 데콜테된 바디스 안에는 슈미즈를 입으므로써 노출된 가슴을 가리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슈미즈의 앞자락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바디스의 앞트임 또한 정숙하게 여미지 않아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하고 있다. 모든 소매는 손목을 드러내는 짧은 길이이며 방향을 목적으로 한 외투의 소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풀어 헤친 바디스의 앞트임을 통해 흐트러진 슈미즈 자락과 풍만한 가슴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에로틱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인간미로 전해진다. 이러한 인간미는 네덜란드 시민들의 특유한 정서에 의해 표출되었다 할 수 있다.

불리한 자연환경과의 투쟁은 그들의 국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자연을 사랑하는 꾸밈없는 마음을 지니게 하였고, 독립을 위한 힘들었던 투쟁과 거대한 무역국으로서의 위치는 평등주의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한 평등주의와 꾸밈없는 마음은 시민들을 자유스럽고 낙천적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자유로운 의식과 드러내 놓은 자유분방함은 자연과 친화된 인간미의 표현인 것이며 그들의 복식은 어떠한 유행에 의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표현해 주는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다.

3. 소박미

소박미는 복식에 있어 단순하고 편안한 형태와 절제된 색

채로 나타났다. 여성의 스커트는 대부분 파딩게일이나 후프와 같은 버팀대가 들어가지 않아 자연스런 원통형 실루엣을 이루고 있으며 바디스 또한, 코르셋으로 조이기 보다는 트임을 끈으로 여미는 정도이다.

흰색의 린넨 머릿수건은 특별한 장식이 없으며 데콜테된 가슴과 목에 두른 스카프 형태의 칼라도 마찬가지로 장식없이 수수하다. 이러한 소박함은 남성복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에서 나타난 바로크 스타일의 복식이 남성복에 있어 더 과장되고 화려했음을 볼 때, 네덜란드 시민의 남성복은 지극히 소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식이 없는 단순한 천을 목에 두르고 앞에서 한 번 고정시켜 준 크라바트의 모습은 귀족이나 다른나라의 화려한 레이스 크라바트와 대조된다.

또한 학자나 문인들의 초상화를 보면 모두 일률적인 복장을 하고 있다. 검은색조의 단색 의상에 흰색의 러프 칼라나 폴링 칼라와 조화를 이룬 흰색의 커프스가 바로 그것이다. 인체를 감싸는 실루엣과 색채, 장식이 절제된 비장식적인 요소로 표현된 종교의 영향은 여성의 머리카락 노출을 금기시하기도 하였다²³⁾.

이러한 소박미의 추구는 사치를 금하고 근검 절약과 금욕을 권고하는 엄격한 종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상인중심의 시민계급에서 보여지는 실리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국교이외의 다른 종교를 허용하고, 다른나라에서 망명한 많은 사상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관대함을 베풀고 동시에 자국의 문인들은 가장 순응주의적인 사회계급에서 선발해 냈다²⁴⁾. 이러한 사실은 앞서 인간미로 표현한 하층 시민계급의 자유로움과 개인적 취향은 방임하면서 중류층 시민계급의 학자나 문인들에게는 엄격한 종교관에 의한 검소한 생활방식을 요구하는 이중적 구조와 마찬가지로 지인 것이다.

이렇듯 금욕적이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방식을 강조하는 종교의 영향과 실리주의는 시민계급의 복식에 있어 절제된 소박미로 표현된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에 나타난 시민복식을 복식의장학 요소에 근거하여 아이템별로 분석함과 동시에 그안에 내재된 복식의 조형미를 함께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민복식이 형성될 수 있었던 시민계급의 성장 배경

은 자유로운 해양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적 번영과 막강한 부의 축적에 밀거름이 된 칼빈주의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의 번영은 문화, 예술분야의 성장을 가져왔는데 특히, 회화의 표현대상에 있어 시민적 성격을 부여, 독특한 화풍을 전개시켰다. 화가들은 작품의 소재를 주변인물이나 일상생활에서 찾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삶을 주제로 하는 풍속화와 초상화, 풍경화 등이 전문화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대상을 묘사하는데 있어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충실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특성이 당시의 복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둘째, 이상을 근거로 살펴본 여성의 기본복식은 슈미즈 위에 바디스와 스커트로 구성된 로브를 입고 외투를 걸치기도 하였다. 남성은 셔츠위에 푸르푸엥을 입고 하의로 바지와 함께 양말을 신었으며, 망토나 캐석과 같은 외투를 걸쳤다. 전반적인 실루엣은 험령하고 여유있는 직선형이었다. 대부분 허리선이 제위치였으며 소매와 스커트의 주름, 페플럼 등의 의복의 활동성을 높여 주었다.

디테일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칼라와 커프스를 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 데콜테와 폴링 칼라를 사용하여 목이 불편하거나 실루엣이 과장되지 않았다. 특징적인 것은 여성의 케이프 칼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네덜란드 특유의 아이템이며 에이프론, 머릿수건과 함께 현재 네덜란드의 민속복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식으로는 브레이드와 단추가 일반적이었고 겨울용 외투의 경우 모피 장식도 많이 나타났으나 중류층 이상의 시민계급에서만 주로 착용한 것으로 보아 고가의 품목으로 사료된다.

셋째, 시민복식은 이러한 외적인 특징과 함께 당시의 시민계급이 추구했던 사상과 감정의 표현으로서 기능미, 인간미, 소박미의 세가지 조형미를 드러낸다.

기능미는 해운업을 통한 상업국으로 번영을 누리게 된 네덜란드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복식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활동성과 실용성의 표현으로서 나타난 기능미는 이전시대나 동시대의 다른나라에서 보여지는 과장된 표현보다는 육체를 크게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여 허리선은 편안한 위치에 있었으며, 후프와 파딩게일이 없는 스커트와 낮은 소매산, 소매의 주름과 페플럼, 장식과 실용목적의 에이프론과 머릿수건, 주름을 잡은 남성의 퀴로트 등으로 표현되었다.

인간미는 척박한 자연환경과 외세와의 오랜투쟁, 상업국으로 번영한 현실적 상황이 낙천적이고 자유분방함을 갈망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복식에서는 인간미의 추

구가 팔목을 드러낸 소매길이와 깊게 파인 데콜테, 자유분방한 옷 매무새 등으로 나타났다.

금욕적이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방식을 요구했던 종교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소박미는 복식의 기능적인 형태뿐 아니라 색채에 있어서도 강하게 나타났다. 검은색조의 단색의상에 흰색의 깨끗한 청교도적 칼라,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감싼 머릿수건, 크라바트와 절제된 장신구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상의 조형미들은 이후 기능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던 현대패션의 근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층인 시민계급의 등장과 시민복식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비단 17세기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시민계급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복식사 연구가 왕족과 귀족계급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 17세기 네덜란드의 회화를 통해 살펴본 시민복식은 당시 주변국들의 바로크 복식과는 사뭇 다른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복식사 연구에 있어 새로운 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복식사 연구에 있어 그동안 치중했던 종적인 연구뿐 아니라 횡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도록을 통한 간접자료의 연구에 머물렀기에 복식의 정확한 세부장식과 색채를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1차적 자료인 실물을 통한 좀더 체계적이고 세심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Valerie Steel, Paris Fashion: A Cultural History, Oxford press(New York Oxford), 1988, p.21.
2. 부르주아지(bourgeoisie)의 번역어. 처음에는 성곽도시(bourg)의 주민을 뜻했으나 후에는 자유로운 직인이나 상인이 뜻함
_____,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 동서문화(서울), 1997.
3. 블랑쉬 페인, 이종남 외 역(1988), 복식의 역사, 까치(서울), 1988, p.371.
Blanche Payne, Histort of Costume, Harper & Row, 1965.
4. 김혜연, 중세말기 회화를 통한 복식 연구-폴랑드르와 구 네덜란드 지역의 성모상을 중심으로-, 복식학회지(17), 1991.
5. 심규남, 네덜란드의 민속의상에 대한 고찰, 목포대학 논문집, 13(2), 1992.

6. 유주리/조오순, 17세기 네덜란드 복식에 관한 연구 -할스, 렘브란트, 베르메르의 회화를 중심으로-, 창원대 생활과 학연구소 논문집, 1, 1997.
7.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서울), 1997, p.198.
8.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서울), 1991, p.183.
9. 선, 실루엣, 디테일, 트리밍, 재질, 색채.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학사(서울), 1990.
10. 막스 베버, 박종선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고려원(서울), 1996, p.39.
11. Arnold Hauser, 백락청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과 비평사, 1980, p.228.
12. 막스베버, 박종선 역(1996), op.cit. pp.208-209.
13. 진원숙, 서양사 산책, 신서원, 1997, pp.218-219.
14. 이주영, 서양의 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p.63.
15. Arnold Hauser, 김진욱 역, Mannerism, 종로서적, 1981, p.106.
- (재인용) 오병헌, 미술세계(중국 산수화와 서양 풍경화의 비교), 84-89호.
16. 김영나, 조형과 시대정신(르네상스 미술에서 현대미술까지), 열화당(서울), 1998, p.123.
17. Arnold Hauser(1980), op.cit. p.232.
18. 오병헌, op.cit. p.132.
19.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1, p.206.
20. 안현경, 17-18세기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전문대 논문집, 14(7), 1997.
21. J앤더슨 블랙, 매쥬 가랜드, 윤길순 역, 세계패션사, 자작 아카데미(서울), 1991, p.25.
22. 막스베버, 박종선 역(1996), op.cit. pp.39-44.
23. 파스칼 보나푸, 최민 역,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베르메르), 열화당, 1994, p.118.
24. 파스칼 보나푸(1994), op.cit. p.110.